낙하산 기관장…선박 안전·운항 업무 '쥐락펴락'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

전문성 요구되는 선박 검사 분야까지 독차지…개선 시급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전직 관료가 눌러앉으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켜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이런 '해수부 마피아'의 산하기관 독식 관행이 폐해를 불러온 단적인 예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고 주 이사장 밑에는 본부장(상임이사) 3명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각각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이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도록 돼있는 선박 검사 분야 기관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있다.

지난 2월 세월호 중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 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에서 일종의 '반란'으로 보고 매우 불쾌해 하는 기류가 있었다.

한국선급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도 현 부원찬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의 장들이 전직 관료들로 채워지는 게 현실이라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기관의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장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사고수습 추이 지켜보며

민생부터 조심스런 활동 재개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 일정을 미루고 사고 수습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여야는 민생 법안 심의를 시작으로 제한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고 발생 직후 선거운동을 일절 중단하는 것은 물론 1주일 연기했던 경선 일정도 부분적으로 다시 뒤로 미뤘다.

새누리당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교대로 현장에 내려가 정부와 승객 가족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국회일정을 재개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 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해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기로 했다"면서 "각 위원회에 계류된 안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외부 일정을 중단한 채 사고 수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미룬 상태에서 사고 수습에 뒷심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사고 수습 이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실종자 구출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수습 이후, 총체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자 가족 행세 선동꾼 있다" 글 올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경찰 조사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등이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 북에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A(여·41)씨는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 권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측에서는 "A씨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간 적은 없다"며 "조만간 피진정인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권은희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총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할 것"

각의 주재…"필요시 암행확인…법위반 단호히 조치"

"정부 초기대응 혼선, 피해가족 배려 조치 부족 송구"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에는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가용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규제개혁법·국민안전관련법 등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경선 위탁 30일로 닷새 연장

진도·안산은 내달 11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야의 6·4 지방선거 준비가 지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 경선의 위탁 기간 시한을 오는 25일에서 30일로 닷새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는 위탁관리 실시 기한을 5월1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이 기초·광역 단위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당내 경선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까지로 닷새 늘어났다.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하면 투·개표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당내 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르면 정당이 관할 선관위에 경선사무 위탁관리를 요청할 때는 선거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경선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15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므로 이달 25일까지 경선을 마쳐야 한다.

애초 새누리당은 여기에 맞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해 25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끝낼 계획이었으나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해 경선 일정을 순연했으며, 최근 선관위에 당내 경선 위탁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①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융3억) 수익율 12%

②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 7천 (보3천, 융 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융1억2) 수익율 13%

상가매매(수익형노후보장)

④수완지구3층(85평)매가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최고위치(보3천 월190만 융2억5천)

⑤첨단지구상가매매2층(62평)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임대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됨(주인직접 사용가)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투룸형운천역2분)★
원룸시설완비 올리모델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11평) 매가 3천3백(보 200, 월 27, 융1000)
• 투룸형(15평) 매가 4천3백(보 300, 월 36, 융1500)
• 투룸임대(15평) 보증금 3백 월 36만원(즉시입주가 올리모델링 방금)
★세채매입시 총매가 1억(천만(융4500만) 실투자 6500만(월수익 100만원) 수익율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나주혁신 토지매매

나주혁신중심도로 빛가람로코너
근생지역 D-9블럭 코너 273평
매가 27억(융 16억)
부영 APT 정문 맞은편 코너
최고위치, 국립전파원옆
신축5층가능(1층만 건축시 월수익 1350만원 1년 수익 1억6천 수익)
수익율13%

나주시산포면등수리 생산관리지역
(도로접) 주택신축가능 945평 매가 3억2천
(1년 500만 수익발생)

화정동 상가 토지 매매
5천세대 아파트 주변
한양아파트 코너 433㎡
(㎡당 150만원)
신축5층가능

010-6832-97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급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선 연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선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접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대전시 건물 162㎡ 신고 18억선 매도 8억 8천
° 동구 대지 542㎡ (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주월동 소방도로접 3종주거지 611㎡(185)차량진입,사찰 등적합 공시지가에 매도 2억 2천
° 시내 목욕탕과 여관등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나대지 377㎡(111)7억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89㎡(2296)요양시설 병원 등적합 감정 60억 은행 26억 매도 44억

임대. 투자.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 운천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수익 매도가 3억 6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항에서 약 2km 산 16860㎡(5100)사찰.별장부지 등 투자에 적합 2700만원
° 쌍촌동 명지아파트부근 5층 원룸건물 대지 320㎡ 건물 479㎡ 보증금 1억선 월 600선수입 7억 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남구 진월동 예식장건물 매매 65억(병원, 요양병원, 교회 적합)
▶ 풍암동 한의원 임대 보증금 3천 월 100만
▶ 봉선동 쌍용사거리 부근 미용실 임대 보7천 월315만

대지/전답
▶북구 용두동 1종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매매39억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 전 17,200㎡ 매매 5억 2천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전,답 8,600㎡ 2억9천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